

신세계그룹, 프로야구단 SK 와이번스 인수 추진

**SK텔레콤, 매각 협상 인정
모기업은 이마트 유력
롯데와 유통 공룡 라이벌 형성**

신세계 그룹이 프로야구단 SK 와이번스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신세계 그룹은 25일 "SK텔레콤과 프로야구를 비롯해 한국 스포츠 발전 방향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세계 측은 "자세한 내용은 (협약) 완료되는 대로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도 신세계 그룹 측과 글자 한 자 다르지 않은 똑같은 반응을 내놓아 SK 와이번스 야구단 매각 협상 중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양사는 매각 대금 규모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이 SK 와이번스를 인수하면 모기업은 이마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그룹은 이전부터 야구단에 관심을 보여 왔다. 서울 히어로즈 구단을 비롯해 여러 차례 야

구단 인수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스포츠 애호가인 정영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역시 야구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세계그룹 계열사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팀은 따로 없고, 여자 축구를 후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신세계 측이 야구단 인수로 기업 이미지 홍보 제고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전망한다. 재정난을 겪던 쌍방울 레이더스를 인수해 2000년 인연을 연고로 창단한 SK 와이번스의 매각 소식은 자못 충격적이다. SK는 '스포테인먼트'(스포츠+엔터테인먼트)

를 앞세워 2000년대 후반 세 차례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해 명문 구단의 반열에 올랐다. 또 2018년 KBO리그 두 번째 외국인 사령탑인 트레이 힐만 감독의 지도로 8년 만이자 통산 4번째로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지난 2년간의 부진을 뒤로하고 SK 전성시대를 이끈 주축 멤버들로 야구단 최고위층을 새로 꾸리고 감독도 교체한 와이번스는 2021년 왕조 부활을 향해 시동을 걸 예정이었지만, 2월 1일 동계 훈련 시작을 앞두고 매각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했다.

SK 와이번스의 모회사인 SK텔레콤은 야구단 주식을 100% 출자했다.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 일가에 속하는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기준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지분 14.5%를 보유 중이다. 신세계그룹이 와이번스 야구단을 인수하면, 롯데그룹의 롯데 자이언츠와 유통 공룡끼리의 라이벌 구도가 새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이 야구단을 매각하면 kt wiz와 벌이던 통신 기업끼리의 대결은 역사 뒤로 사라진 다. /연합뉴스



KIA 타이거즈의 '겹 없던 막내' 정해영이 2021시즌에도 자신감을 던진다. 지난해 KIA 마운드에 정해영이라는 '갯벌'이 탄생했다. 광주일고를 졸업하고 우선지명 선수로 프로에 뛰어들 그는 시작부터 강렬했다. 7월 1일 한화와의 홈경기를 통해 프로데뷔전에 나선 정해영은 1-3으로 뒤진 9회초 등판해 1이닝을 무실점으로 정리했다. 불넷으로 시작했지만, 병살타에 이어 김태균의 헛스윙 삼진으로 아웃카운트 3개를 채웠다. 그리고 9회에 타진 나지완의 끝내기 안타로 KIA가 4-3 승리를 거두면서, 정해영은 데뷔전에서 승리투수가 됐다. 이후 신인답지 않은 집착한 투구로 윌리엄스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은 정해영은 불펜 한 자리를 차지했다. 입단 첫 해 47경기에 나와 3.29의 평균자책점으로 4승 4패 1세이브 11홀드를 기록했다. 2월 1일 캠프 날짜가 다가오면서 정해영도 점점 시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해영은 "오전에는 트레이닝 센터에서 웨이트 훈련을 하고 광주일고에서 캐치볼 등을 하고 있다"며 "공 던지는 것에 집중하고 커브 구종에 신경 쓰고 있다. 웨이트 무게도 올리고 있다"고 근황을 이야기했다. '고졸 루키'로 멋모르고 지났던 첫 캠프와 달리 이번에는 생각이 많다. 정해영은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울 것 같다. 지난해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캠프를 했는데, 올해는 부족한 점도 알고 그걸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졌다"며 "비시즌에 몸 잘 만든 것을 최대한 보여드리기 위해 매일 매일 열심히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정해영표' 자신감 던진다

지난해 프로 데뷔한 고졸 루키 7월 KIA-한화전 첫 등판 데뷔전 '승리투수'로 스포트라이트 끝내기 순간 패전투수 쓴맛도 두번째 캠프 앞두고 자체 훈련 "1년의 경험 통해 책임감 배워 이닝·홀드·방어율 발전할 것"

정해영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체력'이다. 정신없던 첫 시즌이 지난 뒤 깨달은 숙제다. 정해영은 "9-10월에 힘이 떨어졌다. 그때는 몰랐는데 힘이 떨어졌다는 것을 느꼈다. 일단 잘 먹어야 될 것 같다"고 웃었다. 프로 데뷔전에서 승리투수로 조명을 받았던 정해영은 끝내기 순간에 패전투수가 돼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모두 정해영의 야구 키를 키운 소중한 경험이 됐다. 정해영은 "나지완 선배님이 SK전에서 끝내기 홈런을 쳤을 때 이게 프로라는 생각을 했다. 개인적으로는 KT전에서 첫 세이브하고 마운드에서 다 같이 하이파이브했을 때 내가 프로에 왔다는 것을 느꼈고 정말 좋았다"며 "가끔 던지는 영상 보는데 세이브했을 때 볼 3개 던지고 큰일 났다 했었다(웃음). 영점 잡아서 잘 막은 것 같다. 필승조 상황은 물론 점수 차 많이 나는 상황에서 나기도 좋았다. 그때 생각하면 너무 행복했는데 반대로 내가 못 막아서 진 경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쉬운 점도 있다"고 첫 시즌을 돌아봤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 떨리는 순간들도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정해영은 "겹 없던 막내" LG전에서 김현수 선배한테 끝내기 홈런 맞고 그때부터 힘든 게 있었다. 생각도 많아졌다"며 "던지면서 아차 싶었다. 바깥쪽 백도어 슬라이더였는데 한가운데로 갔다. 맞는 순간 넘어간 것은 알았지만 파울이 되길 바라는 건데 홈런이 됐다"고 말했다. 승리투수가 됐던 NC와의 최종전도 가장 긴장했던 경기 중 하나다. 정해영은 "한 시즌이 정말 빨리 갔다. 아마와 달리 기술, 힘이든 모든 게 차이가 많이 났다"면서 "직구가 많이 올라와서 그걸로 과감하게 붙었던 게 좋은 결과로 나온 것 같다. 코치님들께서 도움을 많이 주셨고, 겨울에 힘을 쓸 수 있는 몸을 잘 만든 게 좋았던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또 "운도 좋았다. 컨디션 좋을 때 1군에도 콜업됐다. 신인이라 많은 격려도 받았다. 선배들의 격려 덕분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강렬했던 1년을 통해 정해영은 '책임감'을 배웠다. 정해영은 "못 던져도 다음날 바로 시합에 나가면서 프로라는 것을 배웠다. 어제 못 던졌는데 오늘도 잘 던져야 하는 책임감을 느꼈다"며 "(8월25일) 두산전 때 최주환 선배님한테 안타 맞아서 패전투수가 됐는데, 다음 날은 막았다. 내가 해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해영은 올 시즌에도 자신감 있는 승부로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정해영은 "볼넷 주는 걸 안 좋아하고 아버지(정회열 전 KIA타이거즈 수석코치)도 강조하시는 부분이 볼넷이다. 투 스트라이크 때 무모하게 많이 들 어갔는데 그게 잘 통했던 것 같다. 지난해처럼 자신감 그것만큼은 확실히 어필하겠다"며 "이닝, 홀드, 평균자책점 등 작년 기록 다 넘고 싶다. 더 나아진 모습이 내 목표다. 홀드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닝을 많이 하면 홀드도 따라 올 것이다"고 발전된 2021시즌을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BO 연봉조정, 19년만에 선수 승리

KT 주권, 역대 두번째...선수 제시한 2억5000만원 연봉 결정

KBO 연봉 조정위원회가 KT 주권의 손을 들어줬다. 연봉 조정위에서 선수가 승리한 것은 2002년 류지현(현 LG 감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KBO는 25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연봉 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지난 2001년 이대호(롯데) 사례 이후 10년 만에 소집된 연봉 조정위원회는 KT 구단과 주권에 대한 연봉을 조정했다. 2억 2000만원을 제시한 구단과 2억 5000만원을 내세운 선수의 입장을 검토한 연봉조정위원회는 "2억 5000만원"을 최종 연봉으로 결정했다. 이번 위원회는 조정 또는 중재의 경험이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로 5년 이상 종사한 법조인, 스포츠 구단 운영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

또는 스포츠 관련 학계 인사 중 5명으로 구성됐다. 또 선수와 구단이 추천한 인사가 1명씩 포함됐다. 조정위원장은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고 현재 IOC 국제스포츠 중재 재판소(CAS) 중재 재판원으로 활약 중인 주정대 변호사가 맡았다. 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경 교수(변호사), 스포츠 분야 법률 자문을 주로 하는 김연장 법률사무소 은현호 변호사, 한국야구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단국대 스포츠경영학과 전용배 교수,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상임이사인 서울대 사범대 부학장 겸 체육교육과 김유겸 교수가 조정위원으로 참여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축구연맹, 인턴사원 모집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인턴사원을 모집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으로 프로스포츠 분야 중장기 희망자의 역량 강화 및 실무 경험을 쌓을 인턴사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K리그와 프로스포츠에 관심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학력, 전공, 나이는 상관없다. 단, 토익

780점, 토픽스 380점 이상 등 어학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최종 선발된 인턴사원은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K리그 사무국에서 근무하게 되며, 인턴십이 끝난 뒤 근무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 서류 접수는 2월 1일 정오까지 진행되며, 이메일(recruit@kleague.com) 또는 취업포털사이트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황의조, 첫 멀티골로 '펄펄'

보르도- 양제전 시즌 4·5호 골 2경기 연속 득점...팀 2-1 승리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 지롱댕 보르도에서 뛰는 황의조(29)가 유럽 무대에서 첫 멀티 골을 기록해 팀의 연속 행진에 앞장섰다. 황의조는 24일(한국시간) 프랑스 보르도의 누보스타드 드 보르도에서 열린 양제와 2020-2021 리그앙 21라운드 홈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 전반 8분과 11분 두 차례 득점을 올려 보르도의 2-1 승리를 책임졌다. 황의조의 시즌 4, 5호 골이자 2019년 7월 보르도 유니폼을 입고 프랑스 리그에 진출한 뒤 처음으로 작성한 한 경기 멀티 골이다. 직전 니스전에서 골 맛을 본 황의조는 이날로 두 경기 연속 득점도 기록했다. 이달 10일 로리앙전에서 도움 1개를 작성한 것을 포함하면 세 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올렸다. 이로써 황의조는 올 시즌 정규리그 19경기에서 5골 2도움을 기록, 팀 내 최다 득점자로 올라섰다. 시즌 첫 3연승을 달린 보르도는 승점 32를 쌓아 7위로 올라섰다. 3연패에 빠진 양제는 9위(승점 30)에 머물렀다. 윌름 스트라이커로 나선 황의조의 득점으로도 보르도는 이틀 시간 리드를 잡았다. 전반 8분 문전 훈련



상황에서 상대 수비수의 몸에 맞고 흐른 공을 황의조가 골 지역 오른쪽에서 왼발 슈팅으로 차 넣어 선제골을 터뜨렸다. 3분 뒤 아신 아틀리의 패스를 받은 황의조는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상대 수비수

를 제치고 오른발 슈팅으로 추가 골을 뽑아냈다. 제몫을 다한 황의조는 후반 36분 아마두 트라오레와 교체돼 그라운드를 빠져나왔고, 보르도는 황의조의 결승 골을 끝까지 지켜냈다. /연합뉴스